

2024년 10월 14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KIWOOM WEEKLY

외국인 순매도 지속력 확인 시기

한국 증시는 1) 미국의 9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2) 월러 이사 등 연준 인사들 발언, 3) ECB 회의, 4) 중국의 9월 실물 지표 발표 이후 중국향 수급 변화, 5) TSMC, ASML, 넷플릭스 등 해외 주요 기업 실적 등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550~2,680pt).

이처럼 지난주는 매크로 상 인플레이션이 중요했던 시기였다면, 이번 주는 소매판매, 산업생산과 같은 실물 지표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될 것.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순매도 중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들 순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1.8조원, 9월 -8.9조원)에 집중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취약해진 상태. 이런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 주의 실적 이벤트는 부재하지만, 주중에 TSMC, ASML,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주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들 실적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주들의 수급과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11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잠정실적, 미국 CPI, 한은 금리 인하 이벤트를 소화한 가운데 바이오, 금융, 자동차 등 대형주 업종 중심으로 상승 마감 (KOSPI + 1.06%, KOSDAQ +0.26%)

주 초반 국내 증시는 미국 9월 고용 서프라이즈에 따른 침체 불안 완화, 외국인과 기관의 장중 순매수 전환에 힘입어 반도체, 이차전지, 금융 등 기존 주력 업종들이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세 시현. 미국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강화된 가운데 철강, 화학 등 경기 민감주 업종 중심의 반등세 또한 포착.

다만, 미국채 10년물 금리 4%선 상회, 중동 지정학적 긴장감으로 인한 유가 상승은 증시에 하방압력으로 작용. 한편, 삼성전자 잠정실적은 영업이익 9.1조원을 기록하며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10.8조 원을 하회. 물론, 일각에서 우려했던 7~8조원 수준의 영업이익 쇼크까지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투자심리를 반전시킬만한 재료가 부족함에 따라 외국인의 삼성전자 매도세는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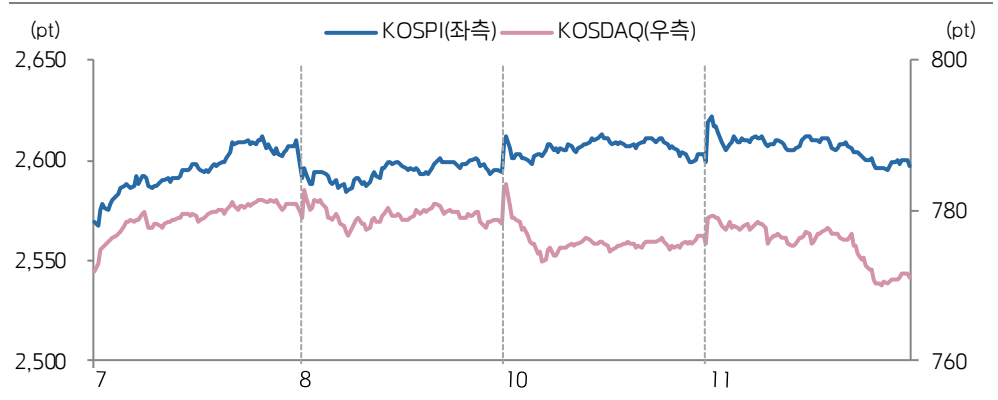
9일(수) 국내 증시는 한글날로 휴장한 가운데 FTSE 러셀의 하반기 채권시장 국가분류에서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최종 결정. 이와 더불어 당초 공매도 금지로 인해 관찰대상국 지정 우려가 제기되었지만 최종적으로 지정되지 않음에 따라 선진시장 지위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안도 요인으로 작용.

이후 미국 CPI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되었음. 한편, G2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진입한 가운데 한국은행도 0.25%p 금리 인하를 단행. 이에 제약바이오 등 금리 인하 수혜 업종을 중심으로 상승

업종별로 의약품(+3.32%), 의료정밀(+3%), 금융업(+2.95%), 운수장비(+2.49%), 보험(+2.09%)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섬유 의복(-3.21%), 전기가스업(-1.54%), 운수차고(-1.23%), 통신업(-1.15%), 화학(-0.2%)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7,832억원)은 금융업(+3,311억원), 운수장비(+2,206억원), 기계(+1,378억원), 의약품(+1,341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2,822억원)은 철강금속(+568억원), 화학(+324억원), 증권(+97억원), 의약품(+63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국가	경제지표	대상	전망치	이전치		
10월 14일	월	발언	월러 미 연준 이사				
		공개	OPEC 월간 원유시장 보고서				
10월 15일	화	독일	ZEW 경기동향지수	10월	-	-84.5	
			ZEW 경기기대지수	10월	-	3.6	
		유로존	산업생산 (YoY)	8월	-	-2.2%	
			산업생산 (MoM)	8월	-	-0.3%	
		ZEW 경기전망지수	10월	-	9.3		
	미국	뉴욕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10월	0.0	11.5		
	발언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실적	뱅크오브아메리카, 골드만삭스					
10월 16일	수	한국	실업률	9월	-	2.4%	
		독일	소매판매 (MoM)	5월	-	-1.2%	
		소매판매 (YoY)	7월	-	-1.7%		
	미국	수출물가지수 (MoM)	9월	-0.4%	-0.7%		
		수입물가지수 (MoM)	9월	-0.3%	-0.3%		
	실적	ASML, 램리서치					
	10월 17일	목	유로존	근원 CPI (YoY)	9월	2.7%	2.7%
				CPI (YoY)	9월	1.8%	2.2%
			CPI (MoM)	9월	-0.1%	-0.1%	
미국		소매판매_자동차 제외 (MoM)	9월	0.1%	0.1%		
		소매판매 (MoM)	9월	0.2%	0.1%		
		산업생산 (MoM)	9월	-0.1%	0.8%		
		NAHB 주택시장지수	10월	42	41		
회의		ECB 통화정책회의	10월	3.40%	3.65%		
실적		TSMC, 넷플릭스, 모건스탠리					
10월 18일		금	중국	고정자산투자 YTD (YoY)	9월	3.3%	3.4%
			GDP (YoY)	3분기	4.6%	4.7%	
			GDP (QoQ)	3분기	0.9%	0.7%	
			산업생산 (YoY)	9월	4.6%	4.5%	
			산업생산 YTD (YoY)	9월	5.7%	5.8%	
			소매판매 (YoY)	9월	2.5%	2.1%	
			소매판매 YTD (YoY)	9월	3.3%	3.4%	
	미국	건축허가건수 (MoM)	9월	-0.3%	4.6%		
		건축승인건수	9월	1.465m	1.470m		
		주택착공건수	9월	1.350m	1.356m		
	발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미국의 9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2) 윌러 이사 등 연준 인사들 발언, 3) ECB 회의, 4) 중국의 9월 실물 지표 발표 이후 중국향 수급 변화, 5) TSMC, ASML, 넷플릭스 등 해외 주요 기업 실적 등에 영향 받을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2,550~2,680pt).

11일(금) 미국 증시는 로봇택시 실망감에 따른 테슬라(-8.8%) 주가 급락에도, 9월 생산자물가(PPI) 안도감, JP모건(+4.4%), 웰스파고(+5.6%) 등 금융주 호실적에 힘입어 상승(다우 +1.0%, S&P500 +0.6%, 나스닥 +0.3%).

이날 발표된 9월 PPI는 전년동월비(YoY) 기준으로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각각 1.8%(컨센 1.6%), 2.8%(컨센 2.7%)로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 이는 CPI와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소지가 있었으나, 전월비(MoM) 기준으로 헤드라인과 코어가 각각 0.0%(컨센 0.1%), 0.2%(컨센 0.2%)로 양호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이 상쇄 요인. 여기에 소비 둔화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은 디스인플레이션 전망이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는 데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9월 CPI, PPI 이벤트를 치르고 난 후에도, Fed Watch 상 11월 금리 동결확률이 30%대에서 10%대 극 초반으로 내려갔다는 점 역시 이번 물가 지표가 연준의 인하 전망에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

이처럼 지난주는 매크로 상 인플레이션이 중요했던 시기였다면, 이번주는 소매판매, 산업생산과 같은 실물 지표의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는 시기가 될 것. 이달 초 9월 고용 서프라이즈 이후 침체 내러티브는 많이 악화됐으나, 이번 9월 소매판매(MoM, 컨센 0.2% vs 8월 0.1%), 산업생산(MoM, 컨센 -0.1% vs 8월 0.8%)이 예상과 다른 방향성을 보일 시 침체 내러티브가 재 점화될 수 있기 때문. 매파 성향인 윌러 연준 이사 포함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미국 경기와 연준의 정책 전망에 가변성이 부여될 수 있는 만큼, 이들의 발언 또한 중요할 것.

한편, 12일(토) 중국 재정부장관 기자회견에서 국채 발행 확대를 통한 저소득층 보조금 지원, 부동산 지원 등을 발표하면서 경기 부양 기대감은 이어졌으나, 구체적인 발행 규모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도 공존하고 있는 모습. 이는 지난 9월 24일 인민은행의 대규모 부양책 발표로 폭등세를 연출한 이후 고점 대비 낙폭이 현재 약 10%대를 기록하고 있는 중화권 증시의 주중 변동성 확대 요인이 될 것(최근 장중 고점 대비 하락률, 상해 종합 -12.4%, 심천 종합 -15.7%, 홍콩 항셱 -8.6%). 그 가운데, 18일(금) 예정된 중국의 3분기 GDP, 9월 소매판매, 산업생산 결과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대만 등 여타 아시아 국가의 수급 변화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인민은행의 금리인하 등 최근 부양 효과를 이번 지표에서 확인할 수는 없겠으나, 예상보다 부진 시 추가 부양 기대치가 높아질 전망이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여타 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으로의 자금 이탈이 추가로 일어날지 여부도 관전 포인트.

국내 증시에서는 삼성전자 등 반도체 중심의 외국인 순매도 중단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지난 9월 코스피에서 7.9조원을 순매도한 외국인은 10월에도 약 1.0조원(~11일) 순매도를 이어가면서 수급 상 지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 이들 순매도의 대부분이 반도체(-1.8조원, 9월 -8.9조원)에 집중되고 있을 정도로, 해당 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취약해진 상태. 이런 측면에서 국내 반도체 주의 실적 이벤트는 부재하지만, 주중에 TSMC, ASML, 램리서치 등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주들의 실적이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들 실적 발표 이후 국내 반도체주들의 수급과 주가 변화에 주목할 필요.

2024년 10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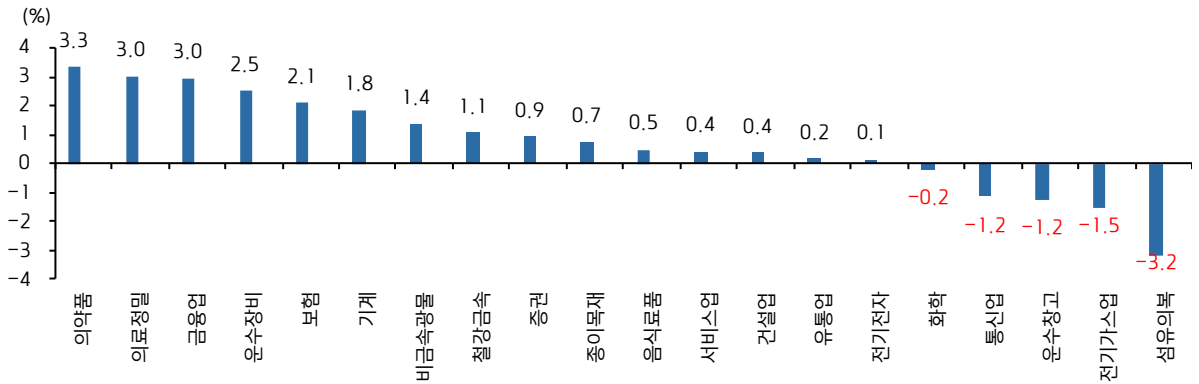
KIWOOM WEEKLY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시장	증가(pt)	기간별 수익률			
		D-1(%)	D-5(%)	D-20(%)	YTD(%)
코스피	2,596.91	-0.1	1.1	3.3	-2.2
대형주	2,591.39	-0.1	1.1	3.3	-2.2
중형주	2,864.58	-0.3	0.9	3.2	2.8
소형주	2,223.84	-0.2	0.4	3.5	-2.7
코스피 200	345.45	0.1	1.1	2.9	-3.5
코스닥	770.98	-0.6	0.3	8.7	-11.0
대형주	1,887.17	-0.8	0.3	11.0	-7.0
중형주	650.61	-0.3	0.0	8.3	-9.0
소형주	2,444.77	-0.3	0.5	5.2	-12.9
코스닥 150	1,313.36	-0.9	-0.1	11.0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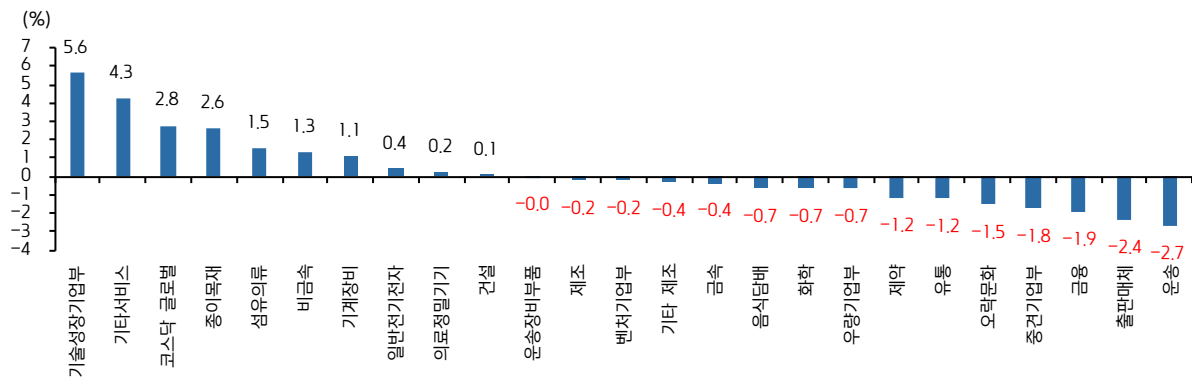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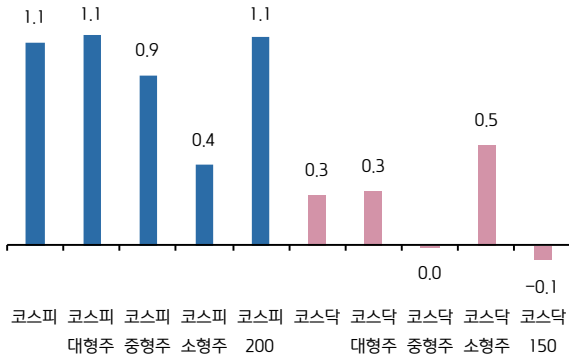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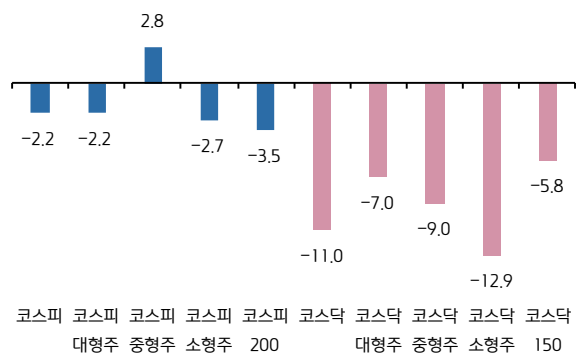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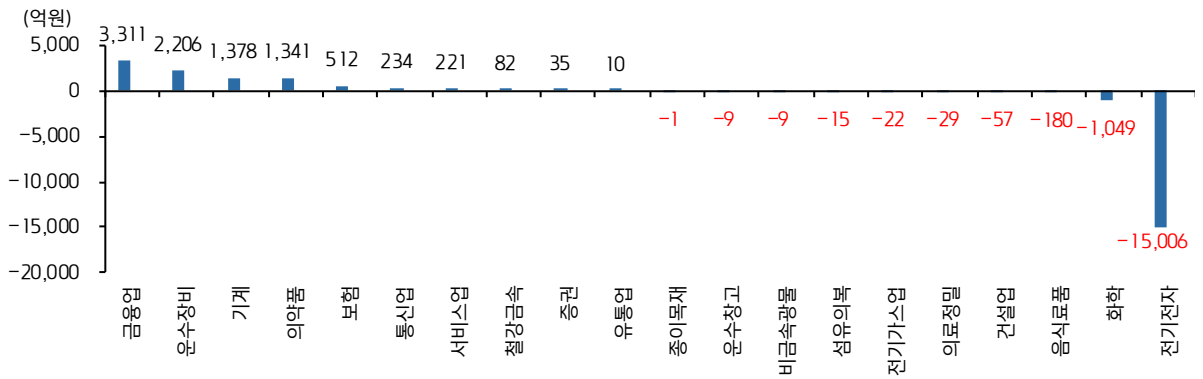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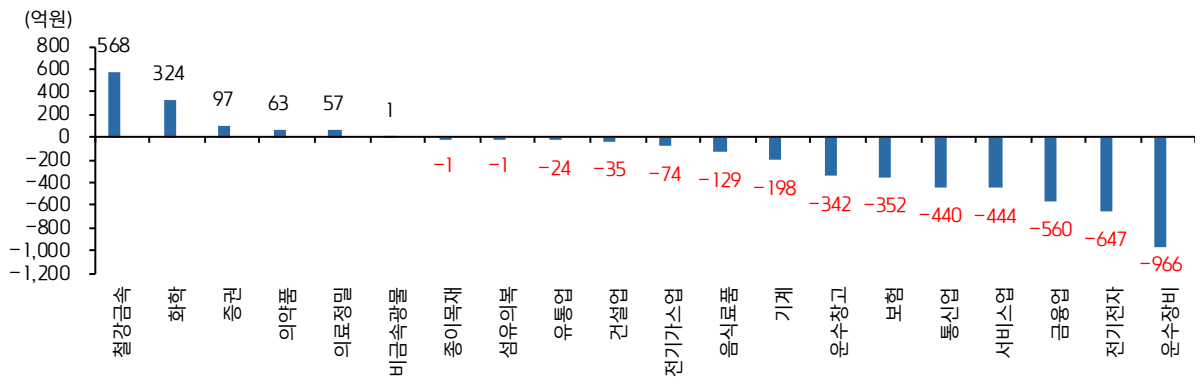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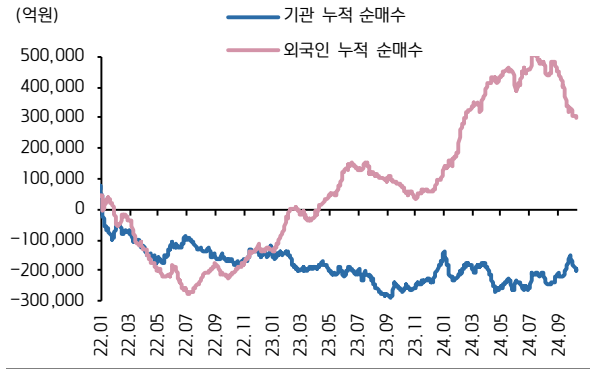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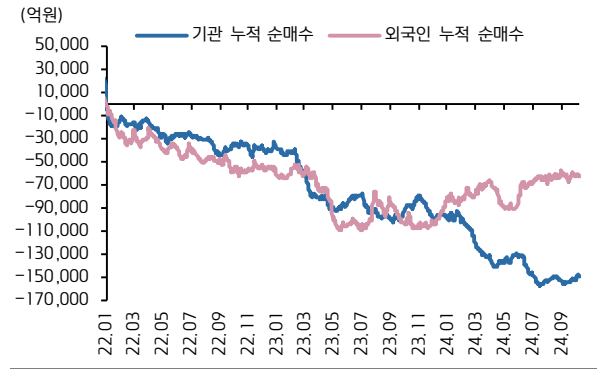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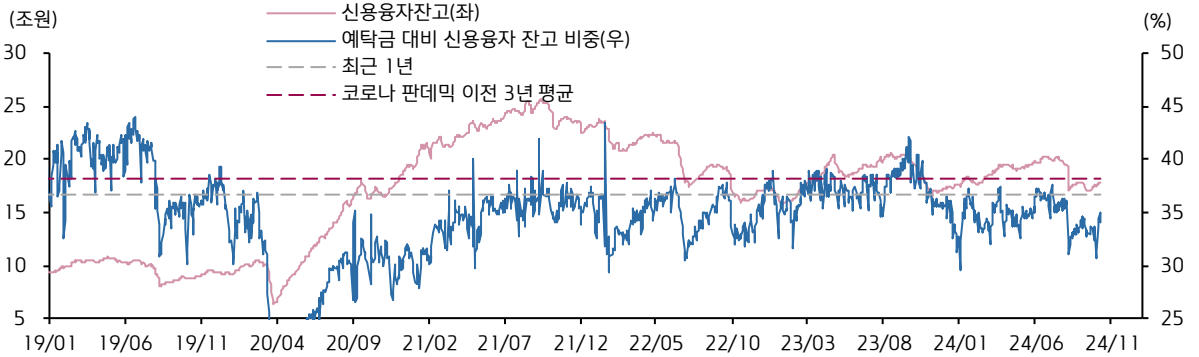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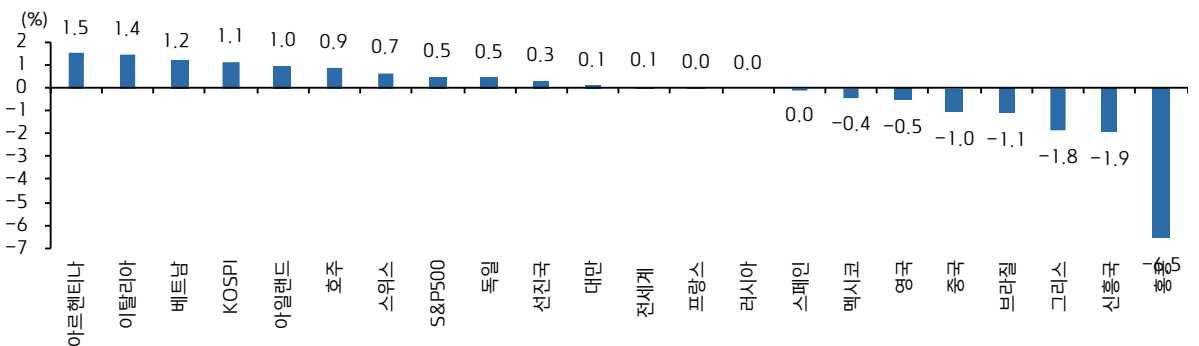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용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용자 잔고 비중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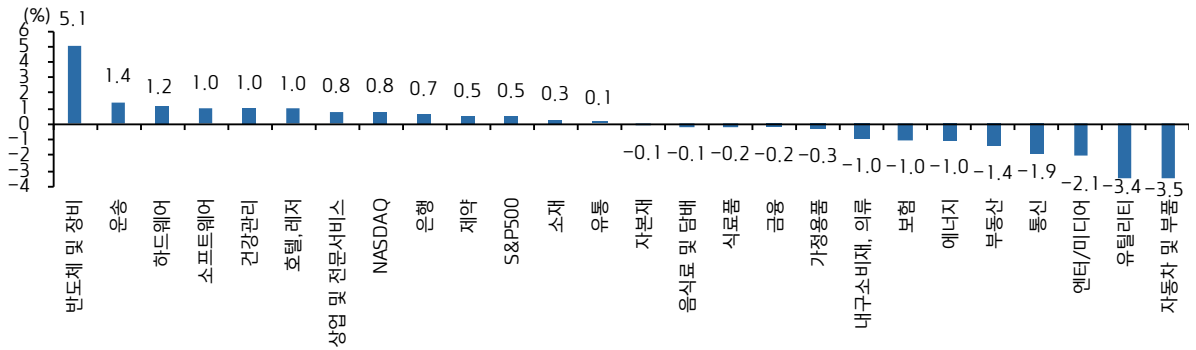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4년 10월 14일

KIWOOM WEEKLY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